

“대기업 노하우로 지역 스타트업 육성한다”

**삼성 ‘C랩 아웃사이드 광주’ 개소
지역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
고스트페이스 등 광주 5개 기업 선발
맞춤형 컨설팅·계열사 협력 지원**

삼성전자가 광주에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를 개소하고 지역 스타트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20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개최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 양항자(무소속) 의원,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정성택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직접 참석해 C랩 아웃사이드 광주의 개소를 축하했으며 첫 입주기업으로 선발된 고스트페이스 등 5개 광주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찾은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는 470여평 규모의 공간에 스타트업 업무공간과 네트워킹공간, 회의실, C랩파트너 사무실, 휴게공간 등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 입주한 광주지역 혁신 스타트업 5개사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글로벌 기업으로 규모를 키워나갈 전망이다.

C랩 아웃사이드는 지난 2018년부터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스타트업 지원, 육성 프로그램으로 대기업이 보유한 업체 선발, 육성, 사업 협력, 투자 유치 등 각종 노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상무사옥에서 개최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개소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가운데)이 축사를 하고 있다.

하우를 그대로 이전해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마련된 C랩 아웃사이드 대구에 이어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개소한 광주 캠퍼스를 통해 지역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은 물론, 육성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해 11월 공모전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입주기업은 △경량화 솔루션을 적용한 AI 모델 개발 기업 ‘클리카’ △AI 기반 생체정보 인증·결제 솔루션 기업 ‘고스트패

스’ △AI 활용 동물 생체 분석 및 가축케어 플랫폼 개발 기업 ‘인트플로우’ △얼굴 영상으로 건강·감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솔루션 기업 ‘감성택’ △에너지 절감 냉각 소재 개발 기업 ‘포엘’ 등 5곳으로 AI, 헬스케어, 소재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광주 지역 혁신 스타트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송영민 포엘 대표는 “C랩 아웃사이드로 선정돼 큰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 삼성전자와의 협업 기회가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대 1억원의 사업지원금과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계

열사와의 협력 기회 연결, CES 등 국내외 IT 전시회 참가, 국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1년간 서울의 C랩 아웃사이드 스타트업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삼성전자는 특히 광주지역이 ‘AI 혁신 거점’이라는 특성에 맞게 AI 분야 스타트업을 중점 선발했다는 입장이다.

C랩 아웃사이드 광주 캠퍼스 입주 기업 공모는 매년 광주에서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며 전문적으로 육성을 담당하는 삼성전자 임직원이 업체별로 1:1 매칭돼 밀착, 맞춤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가 축적된 ‘C

랩 아웃사이드 서울’과 ‘C랩 아웃사이드 광주’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업체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하지 않고도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고 성장해 지역경제 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은 “삼성전자의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 도시’ 실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C랩 아웃사이드 광주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이 많이 나와 광주가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은 “스타트업의 혁신성, 역동성과 삼성의 노하우, 인프라, 네트워크가 시너지를 내면 새로운 혁신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수 기술을 보유한 광주의 창업 기업이 세계로 뻗어 나가기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광주사업장 내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광주캠퍼스를 개소한데 이어 삼성희망디딤돌, 삼성드림클래스, 삼성주니어SW아카데미, 삼성스마트스쿨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근에는 광주과기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지역 반도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전환 사업을 통해서도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지역 114개사의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금호타이어, 국내 업계 최초 ‘TCFD’ 지지

금호타이어는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로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지지를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TCFD는 G20 재무장관회의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위해 설립한 협의체로, 기업이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목표관리 등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조직의 의사 결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세계 95개 국가의 약 3400개 기업 및 기관이 TCFD를 지지하고 있으며 국내 타이어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처음으로 참여했다.

금호타이어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 인한 영향과

금융 리스크를 경영에 반영해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내 TCFD 권고안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부터 한국TCFD얼라이언스에도 참여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TCFD 지지 선언을 계기로 내년에 별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전환 리스크와 기회를 경영전략에 통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 AI업체, 정부 한-이스라엘 협력대표단 참여

인디제이, 시장 개척 모색

광주의 인공지능(AI) 전문업체 인디제이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정부의 한-이스라엘 협력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장 개척을 모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과 이스라엘 양국 정부 주도로 기술협력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된 시점에서 양국의 기업 간 스마트모빌리티 분야의 전략적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을 위해 마련됐다.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는 이번 출장에서 ‘한-이스라엘 이노베이션데이’ 참석으로 이스라엘 현지 기업 및 현지 인공지능 및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관계자 등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한-이스라엘 스마트모빌리티 혁신컨퍼런스는 정부·기관·기업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며 양국 기술협력이 시작된 이래 국회차원에서 최초로 방문하는 정책현장인만큼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한 미래혁신과 기술협력의 토대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상황’과 ‘감정’이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음악 플랫폼 서비스를 개발한 인디제이는 테슬라 등 차량에 인디제이 플랫폼을 탑재하는 등 스마트모빌

리티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이스라엘 시장 개척으로 글로벌 시장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우주 인디제이 대표는 “현재 인디제이의 인공지능 플랫폼에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2-3년 안에 스마트모빌리티 차량에 인디제이 플랫폼과 솔루션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글로벌을 겨냥한 서비스를 추가해 해외 진출 기회를 확장하고 다양한 플랫폼 환경의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듣고, 놓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소비 생태계를 제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노동 칼럼

임신 중 육아휴직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입사하고 3개월이 지나 임신을 하게 됐는데 A씨의 업무가 계속 서서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 일이고, 편도 40분이 넘는 시간을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 초기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 사업장에 별다른 연차휴가도 없어서 휴가를 내고 싶 수도 없다. 고민하던 A씨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보를 듣고 3월 초 사업장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초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였다. 하지만 지난

2021년 11월19일부터 임신 중인 노동자도 예외적으로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A씨는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자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사업장에서 A씨의 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제외 대상이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조는 육아휴직 시행일 전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는 사업주가 예외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일했

기 때문에 현재 근속기간이 5개월가량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재직기간 6개월 이후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부여된다. 따라서 예외 기간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신청했을 때는 사업주가 무조건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현재 당장 어려움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방법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 거절을 이유로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이연주 공인노무사

다만, 이 경우에는 A씨가 해당 사업장 입사 이전 다른 곳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총 피보험 자격이 180일(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약 7개월) 이상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자진 사직을 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당장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4년 한도로 연기해

야 할 것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당장 쉽기 필요한 A씨 상태를 고려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동시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주로서도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노동자가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으로 이를 위한 제도 정비와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면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